관심사 독해: 권위를 검산하는 법

2026년 11월 21일 게시글 대상분

주가 버블을 둘러싼 지표의 충돌에서 시작해, 무역적자와 투자의 회계 항등식, 20년 만에 뒤집힌 의학 사례 보고, 국가가 가르치는 뉴스 판별법, 말하기 훈련까지 이어 간다. 오늘 묶인 글들은 권위를 부정하기보다, 권위가 내놓은 숫자와 기록과 교육을 어떻게 검산할지 묻는다.

두 개의 주가 지표가 주는 다른 경고

Econbrowser — A Timely Note from Justin Fox

미국 주식시장이 10월 초의 고점에서 내려온 뒤, 인공지능 관련 주가가 버블인지 다시 묻는 글이다. 저자는 두 지표를 나란히 둔다. 하나는 향후 1년 예상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선행 주가수익비율이다. 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이익 1원을 사기 위해 투자자가 얼마를 내는지 보여 준다. 이 비율은 특히 대형 기술주에서 크게 낮아졌다. 다른 하나는 로버트 실러의 CAPE다. CAPE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지난 10년 평균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한다. 이 지표는 여전히 매우 높다.

두 지표가 다르게 움직이는 이유는 분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앞으로의 기대 이익을 쓰므로, 주가가 빠지거나 애널리스트가 이익 전망을 크게 올리면 낮아진다. CAPE는 오래된 실적을 포함하므로 단기 이익 전망이 좋아져도 천천히 내려간다. 그래서 “기술주 밸류에이션이 많이 정상화됐다”와 “시장 전체는 여전히 비싸다”가 동시에 참일 수 있다. 버블 논쟁은 한 그래프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각 지표가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놓치는지를 분리하는 일이다.

이 글의 중요한 태도는 예언을 멈추고 정의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일시적 조정인지, 몇 년간 이어지는 평가절하인지는 당일 주가가 말해 주지 않는다. 금리, 이익 실현, AI 투자의 회수 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인공지능이 실제 생산성을 높여도 주식 수익률은 매수 가격이 정한 기대를 넘어설 때만 좋아진다. 좋은 기술과 좋은 투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무역적자를 둘러싼 회계 항등식

Cafe Hayek — Yet Another Open Letter to Donald Trump

한 경제학자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일을 막거나 높은 세금을 매기겠다는 구상을 비판한다. 논점은 데이터센터의 입지가 아니라 회계의 일관성이다. 한 나라가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적자를 내면, 그 반대편에는 외국 자본이 그 나라에 더 많이 들어왔다는 자본계정 흑자가 대응한다. 이것을 국제수지 항등식이라고 한다. 모든 거래를 기록하면 돈의 흐름은 반드시 어딘가에 상대 항목을 남긴다는 뜻이다.

이 관계에 따르면 미국인이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외국인이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미국인의 해외투자를 벌하고 외국인의 미국 투자를 환영하는 정책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두 선택 모두 무역적자를 키우는 쪽이다. 저자는 무역적자 자체를 경제 쇠퇴의 증거로 보지 않지만, 적자를 나쁘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의 논리 안에서도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 항등식이 데이터센터 정책의 정답을 주지는 않는다. 에너지 수요, 고용, 국가안보, 세수처럼 별도로 따질 이유는 있다. 그러나 그런 이유를 들려면 무역적자 감축이라는 목표를 내려놓거나, 목표와 수단의 충돌을 설명해야 한다. 회계 항등식의 힘은 정책의 선과 악을 바로 결정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모순되는 목표를 동시에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20년 뒤에 무너진 모유 수유 경고

Retraction Watch — Lancet retracts report by former SickKids pediatrician on infant's death from opioid poisoning

의학저널 Lancet이 2006년에 실린 아기 사망 사례 보고를 20년 만에 철회했다. 보고는 코데인을 처방받은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 아기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숨졌다는 해석을 담고 있었다. 코데인은 몸속에서 모르핀으로 바뀌는 진통제다. 병원의 조사는 아기의 혈중 코데인과 아세트아미노펜 농도, 위 내용물 같은 핵심 독성학 자료가 논문에서 빠졌고, 그 누락이 독자가 결론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없앴다고 판단했다. 저널은 이를 데이터 조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철회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학술 기록이 아니었다. 철회된 논문은 464회 인용됐고, 모유 수유 중인 산모에게 코데인 처방을 피하라는 미국 식품의약국 안내의 근거 중 하나가 됐다. 그 안내가 인용한 논문 19편 중 7편에 같은 저자가 참여했다. 한 편의 사례 보고가 지침과 후속 연구와 언론 보도를 거치면서 "확립된 위험"처럼 자리 잡은 것이다. 이미 2020년의 한 재검토는 아기의 혈중 코데인 농도가 모유를 통해 예상되는 수준보다 약 100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기가 모유가 아니라 약을 직접 섭취했을 가능성을 더 강하게 시사한다.

이 사건은 과학의 자기수정이 작동했지만 매우 늦게 작동했음을 보여 준다. 철회는 정의를 세웠지만, 그동안 지침과 진료와 공포는 실제 세계를 움직였다. 특히 사례 보고는 원래 이론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기하는 신호다. 하나의 사례가 정책의 기초가 될 때는 원자료가 모두 공개됐는지, 다른 설명은 무엇인지, 반대 전문가가 같은 수치를 어떻게 읽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권위 있는 저널의 이름은 검증을 대신하지 못한다.

누가 '가짜 뉴스'를 가르치는가

Norbert Häring — Europäischer Statistikwettbewerb 2026/27: Deutschlands Schüler werden kriegstüchtig gemacht

독일의 한 경제 블로거는 유럽 통계 경시대회에 "뉴스 이해력" 문제가 들어간 것을 비판한다. 이 대회에는 2025~2026학년도에 22개 EU 국가에서 약 3만 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그는 대회의 독일 예선을 돕는 언론교육 단체와 시민교육 단체가 통계와 무관하게, 정부와 EU, NATO가 해롭다고 보는 서사를 걸러 내도록 학생을 훈련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문제 삼는 핵심은 허위정보의 정의다. 무엇이 거짓인지, 누가 정하는지, 논쟁적인 사안에 하나의 진실만 있다고 가정해도 되는지를 충분히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은 EU와 NATO의 협력, 2022년 유럽의회 결의, 그리고 "프리벙킹"이라는 교육법을 근거로 든다. 프리벙킹은 실제 허위정보를 접하기 전에 그 기법을 미리 약하게 보여 주고 반박하게 해 심리적 면역을 만드는 방식이다. 백신처럼 약한 자극으로 방어력을 기른다는 비유다. 이 방법 자체는 조작된 영상과 금전 요구, 유명인 사칭처럼 분명한 속임수에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권위를 의심하는 내용"을 위험 신호로 가르치는 순간, 매체 판별력 교육은 검증 훈련이 아니라 충성 훈련이 될 위험이 있다.

다만 이 글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자는 교재가 직접 말하지 않은 “암시”를 여러 단계 추론해 강한 결론으로 연결한다. 러시아의 실제 정보전과 극우 정당의 허위 주장을 다루는 일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남는 질문은 중요하다. 좋은 뉴스 교육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명단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처의 자금과 이해관계, 인용한 원자료, 빠진 자료, 반대 해석을 확인하게 한다. 정부가 이 교육을 설계할수록, 정부 자신도 검증 대상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말하기를 재능 대신 검산 가능한 훈련으로

books76 — 書評 / 話し下手は転職がうまくいかない？なら話し上手になればいいんです『人見知りアナウンサーに学ぶ ドキドキに負けない話し方』

한 일본 서평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독자에게, 전직 아나운서의 책을 통해 말하기를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기술로 다시 정의한다. 책의 저자는 원래 낯을 가렸던 아나운서다. 그가 말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발음이 매끄럽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농담을 유지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은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해 자기 방식을 찾는 것이다.

훈련의 출발점은 관찰이다. 책에 나오는 한 수강생은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본 뒤 충격을 받는다. 이 장면은 중요하다. 자기 평가는 종종 기분에 좌우되지만, 녹화는 수정 가능한 기록을 준다. 아침의 입 근육 운동, 먼저 하는 인사, 표정 관리 같은 작은 행동도 같은 원리다. 서평이 전하는 “인상의 6할은 표정”이라는 수치는 과학적 법칙이라기보다 현장 경험에서 나온 감각치로 읽어야 한다. 그래도 핵심은 남는다. 상대가 받는 인상은 내가 의도한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로 전달된 신호로 만들어진다.

이 서평에는 상품 광고가 함께 붙어 있지만, 책 해석 자체는 광고와 분리할 만하다. 오늘의 다른 글들이 숫자와 문서를 검산하라고 말한다면, 이 글은 자기 표현을 검산하라고 말한다. 녹화해 보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시행을 조정하는 일이다. 권위나 재능에 맡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훈련이다. 다만 자기 검산은 자기 비하와 다르다. 목표는 완벽한 화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긴장 속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잃지 않는 일이다.

수집과 근거

승인된 피드 22곳 중 20곳을 확인했고, 2곳은 피드 형식 오류로 수집하지 못했다. 새 글 17편을 모두 끝까지 읽은 뒤 5편을 분석하고 12편은 생략했다. 분석한 5편은 원문 페이지와 대조해 전문 수신을 확인했다.

출처

- https://econbrowser.com/archives/2026/11/a-timely-note-from-justin-fox
- https://cafehayek.com/2026/11/yet-another-open-letter-to-donald-trump-3.html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1/20/lancet-gideon-koren-sickkids-toronto-infant-death-opioid-poisoning-breast-milk-retraction/
- https://norberthaering.de/propaganda-zensur/europ-statistikwettbewerb/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21/120000